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중국, 그 꿈의 시작

(永遠的追夢人- 한국어번역논문)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金 垠 伶

2016年 7月

중국, 그 꿈의 시작

(永遠的追夢人- 한국어번역논문)

指導教授 宋 咳 宣

金 垠 伶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 年 7 月

金垠伶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6 年 7 月

역자 서문

번역 논문 작품을 선정하려 도서관과 인터넷 도서를 둘러보던 중 <중국, 그 꿈의 시작(永遠的追夢人)>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책명을 직역하면 ‘영원히 꿈을 좇는 사람들’이다. 책에 소개된 수많은 인물들의 스토리를 읽고 나서, 그들은 꿈을 좇는 사람이 아닌 꿈을 계승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꿈의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중국, 꿈을 실현하자’의 ‘꿈’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일군 업적을 계승 발전하자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논문 제목을 <중국, 그 꿈의 시작>으로 풀이했다.

꿈을 주제로 하는 책은 무수히 많이 있고 그 꿈의 주된 내용은 개인의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의 내용 또한 성공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국, 그 꿈의 시작>은 아편전쟁 이후 혁명, 항일, 군사, 교육, 의료, 건축, 예술, 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공헌을 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 속에 ‘중국을 발전시키겠다.’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 그 꿈의 시작>은 몇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그 중 ‘여성영웅’과 ‘과학천재’ 이야기를 번역하기로 정했다. ‘여성영웅’이 보여준 강렬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과학천재’는 한국인에게 아직 생소한 인물들이 있어서 이로 정했다.

예를 들면, ‘여성영웅’에서 소개되는 인물 중 셰시더(謝希德)는 신중국 최초의 여성 대학 총장이었다. 그녀는 1956년 반도체팀을 구성하였다. 연구와 개발을 통해 수많은 과학인재들을 배출하였고, <반도체 물리학>이라는 책도 편찬하며 과학 분야 발전에 공헌을 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 반도체 분야를 여성이 이끌었다는 점에 저절로 존경심이 들었다.

‘과학천재’ 부분에서 소개되는 덩자셴(鄧家先)은 핵무기 개발 분야에 전문가였다. 미국 유학 당시 그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본 미국정부는 그를 교도소에 가두면서까지 미국에 잡아두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자셴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갔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원자폭탄과 탄도미사일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조국의 핵무기사업 발전에 공헌한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과학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연구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개인의 명예는 중요치 않다는 결단과 희생정신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관계, 주변국가

와의 관계 그리고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씩씩함을 느꼈다.

창작은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과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산통과도 같다고 했다. 번역은 제 2의 창작이다. 그만큼 번역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번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생활, 문화, 전통, 사상 등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한국적 어휘와 어감에 맞게 풀어야하는 점이 어려운 과제였다. 직접 쓴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역자가 느끼는 감정과 이해도에 따라 번역이 자연스러울 수도 또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표현을 여러 어휘를 사용해 예문을 만들어 고치고 다듬어 가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았다.

둘째, 한국어 또한 비록 모국어이지만 어려운 언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특히 띄어쓰기, 조사, 받침 등의 사용은 아직도 망설여진다. 다행히 이 문제의 해결은 국어 사전을 활용해 해결했다.

셋째, 중국 고유명사의 경우, 중국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자어 발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는 가장 상용되는 국립국어원 지정 중국어병음 한글표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했다.

넷째, 초벌번역 후 교정 작업에 들인 시간이 첫 번째 번역에 비해 배가 들었다. 읽고 또 읽고 수차례에 걸쳐 수정과정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색한 부분과 오타까지도 정감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의 여유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 재확인을 하다 보니 조금씩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논문을 준비하며 ‘번역은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창작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왜냐하면 중국어 표현을 한국인 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종의 재창조의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아무리 첨단을 달리는 컴퓨터라도 번역에 있어서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기에 번역은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느끼지 못하면 좋은 번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번역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수님, 선배와 학우들, 그리고 친구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목 록

여성 영웅

추진(秋瑾)	젠후의 여협-----	3
송칭링(宋慶齡)	국가의 보배 인물-----	7
자오이만(趙一曼)	불굴의 항일 열사-----	13
린차오즈(林巧稚)	의학계 어머니-----	18
빙신(冰心)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다-----	22
셰시더(謝希德)	신중국 최초의 여성 대학총장-----	25

과학 천재

잔텐유(詹天佑)	중국 철도의 아버지-----	30
마오이성(茅以升)	미국에서도 1 등이다-----	33
주커전(竺可楨)	꽃이 알려준 사실-----	38
량쓰청(梁思成)	인민영웅기념비-----	43
덩자셴(鄧稼先)	한 송이 활짝 피어난 마린꽃(馬蘭花)-----	48
첸쉐션(錢學森)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항공우주의 꿈---	52
천징룬(陳景潤)	수학 왕관의 빛나는 보석을 차지하다-----	56

여 성 영 응

추진(秋瑾)

젠후의 여협



저장성(浙江省) 사오싱시(紹興市) 남쪽에는 전형적인 강남(江南)의 민가 한 채가 있다. 이 민가는 수목이 우거진 타산(塔山)에 인접해 있으며 드넓은 젠후(鑑湖)와도 멀지 않다. 이러한 아름다운 주변 자연을 배경으로 위치한 이 민가가 바로 '추진기념관'이다. 기념관 입구에는 신해혁명의 원로인 허상닝(何香凝)이 친필로 쓴 '추진기념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의 글을 보며 이 위대한 여성의 삶이 저절로 뇌리에 떠올랐다.

혁명에 몸을 던지다

추진은 저장성 사오싱 사람이다. 스스로를 '젠후의 여협'이라고 칭했다.

1904년 여름,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조국과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진리를 찾고자 봉건적 가정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추진은 일본 유학 중 중국인 유학생의 반청운동(反淸運動)에 적극 가담하며 송자오런(宋教仁),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쉬시린(徐錫麟), 황싱(黃興), 쑨중산(孫中山)

등 혁명지사들과 교류했다. 후에 이들의 소개로 반청혁명조직인 광복회에 가입했고 뒤이어 동맹회에도 가입했으며 동맹회 저장(浙江)지부의 회장과 책임자로 추대됐다.

1906년, 추진과 학우들은 일본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분연히 귀국을 결심했다. 추진은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통(大通)학당을 인수했다. 다통학당은 1905년 9월 광복회의 지도자인 쉬시린(徐錫麟)과 타우청장(陶成章)이 설립하여 각 지역 회당(會黨)간 연락, 군사간부 훈련 및 양성을 했던 곳이다. 표면적으로는 학당이지만 사실상 광복회 활동의 중심이자 안후이성(安徽省)과 저장성(浙江省) 무장봉기의 주요 거점지였다. 추진은 다통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비밀리에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고 혁명의 세력을 키우면서 무장봉기를 준비했다.

항저우(杭州)에서 추진은 안후이(安徽)로 향하는 쉬시린을 비밀리에 만나 안후이와 저장 두 지역에서 동시에 봉기를 일으키고 서로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쉬시린과 만남 후 추진은 다통학당을 근거지로 삼아 저장의 각 지역을 분주히 다니며 회원들과 연락을 취하고 무장봉기를 적극적으로 준비했다. 추진은 안칭(安慶)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쉬시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봉기의 구체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저장 각 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봉기는 예정된 날짜에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안칭 봉기는 내부 밀고자가 생기면서 급하게 감행하다 결국 실패로 끝나고 쉬시린도 살해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추진은 목 놓아 통곡했다.

목숨을 바치다

추진은 사오싱 혁명계획도 곧 들통이 날 것이고 머지않아 정부가 다통학당으로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진에게 서둘러 피신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동지들에게 봉기와 관련된 문서와 명부를 소각시키게 하고 총기와 탄약을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전우들을 해산시키고 본인은 다통학당을 굳건히 지키며 혁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준비를 했다.

며칠 후, 청군(淸軍)에 의해 다통학당이 포위되었고, 추진과 동지들 역시 체포되었다. 사오싱 지부(知府)인 구이푸(貴福)가 추진을 직접 심문했다. 구이푸는 압수한

봉기 문서를 내밀며 “이것들은 누가 작성한 거냐? 너희 패거리에 또 누가 있느냐?”라며 추궁했다.

추진은 “내가 쓴 것이오, 하지만 혁명당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않을 테니 더 묻지 마시오.”라며 차갑게 대답했다.

구이푸는 집요하게 “평상시 누구와 왕래를 했고, 다통학당에 누가 왔다 갔냐?”고 추궁했다.

추진은 그를 싸늘하게 비웃으며 “당신이야말로 우리와 자주 왕래하지 않았나요? 다통학당에 자주 왔었잖아요? 잊었어요? 다통학당의 주련(柱聯)을 써 주었잖아요? 다통학당에서 사진도 찍었잖아요?”라고 말했다.

구이푸는 그녀의 말을 들은 후 말문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추진 아버지와 아는 사람이었고 평상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으로 학당을 관리해 보라며 지지해주었다. 추진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자 겁을 먹은 구이푸는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다.

구이푸는 추진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회유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결국에 그는 허위로 죄상을 조작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충 사건을 마무리했다.

7월 15일 새벽, 추진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사오싱의 옛 쉬안팅커우(軒亭口)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2세에 불과했다.

끝나지 않은 여운

‘가을비, 가을바람이 사람을 수심에 차게 하네(秋風秋雨愁煞人).’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추진이 형장에서 남긴 이 마지막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사람들은 이 시구를 추진이 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청대 시인인 타오중량(陶宗亮)의 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원래 추진이 인용한 시구 전체 내용은 ‘가을비, 가을바람이 사람을 수심에 차게 하네, 추운 밤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구나(秋風秋雨愁煞人, 寒宵獨坐心如搗).’이다.

추진이 희생된 후 동지들은 그녀의 생전 소망대로 항저우 시링차오(西泠橋) 호숫가에 유해를 안치하고 묘지를 만든 후 ‘풍우정(風雨亭)’이라고 하는 기념정자도 세

왔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기 마련이다. 추진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처형당한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신해혁명(辛亥革命)의 포화가 우창(武昌)에서 울려 퍼지면서 청왕조(淸王朝)는 결국 포화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옛 쉬안팅커우(軒亭口)자리에 기념비를 세웠고 추진의 동상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 대문 조벽(照壁)위에 쑨중산(孫中山)이 친필로 쓴 ‘巾幗英雄(여성영웅)’네 글자를 새겨두었다.

쑹칭링(宋慶齡)



국가의 보배 인물

중화인민공화국 명예주석, 애국주의·민주주의·국제주의·공산주의의 위대한 전사, 쑨중산(孫中山)의 부인 등 쑹칭링을 부르는 호칭은 매우 다양하다. 그녀와 만났던 사람은 모두 다 그녀의 고귀한 성품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온화하면서도 불꽃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타오르던 백장미와 같았고, 높은 산 위에서 차디 찬 서리와 눈발을 견디는 매화와도 같았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그녀를 ‘국가의 보배 인물’이며 모든 여성의 모범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혁명의 이상을 세우다

쑹칭링을 전사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군복을 입고 전투를 벌인 적도 없으며 창과 칼을 휘두른 적은 더더욱 없었다. 오로지 강인한 성품과 빈틈없는 철저함으로 여성 영웅이 된 것이다. 그녀는 지도자라고 불리지만 영웅들을 제압하거나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녀의 매력적인 인품은 혁명가들의 지도자가 되기 충분했다. 외적으로 보면 그녀는 연약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강철 같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과 사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쑹칭링은 명문대가인 쑹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여섯 형제자매들은 어릴 적부터 더할 나위 없이 사이좋게 지냈고 모두 미국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았다. 중국 정치에 폭풍우가 휘몰아칠 무렵 쑹씨 형제자매들은 신념, 성격, 사상 등의 이견으로 결국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큰언니 쑹아이링(宋藹齡), 남동생 쑹쯔원(宋子文), 둘째 남동생 쑹쯔량(宋子良), 여동생 쑹메이링(宋美齡)과 막내 남동생 쑹쯔안(宋子安)은 모두 국민당 요직에 올랐다. 하지만 쑹칭링은 이러한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한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 형제자매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쑨중산(孫中山)의 영어비서직을 맡은 후로 쑹칭링은 쑨중산의 혁명이상을 자신이 평생 분투해야 할 목표로 삼았다. 쑨중산이 서거한 후 쑹칭링은 계속해서 혁명의 횃불을 높이 밝혔다. 비록 형제자매가 모두 장제스(蔣介石) 편에 서서 그녀와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세 높은 쑹씨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았다. 가난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조금의 주저도 없이 혁명의 용광로에 몸을 던졌다.

항전 중 활약

항일전쟁 시기에 쑹칭링은 전방의 부상자들을 자주 찾아갔다. 또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국제 외교무대에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대후방(항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점령당하지 않은 중국의 서남·서북 지역)에서는 항일 전쟁 물자와 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1938년 6월, 항일 전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며 팔로군(八路軍)과 신사군(新四軍)은 제대로 군량도 공급받지 못했다. 애국 화교들과 우호국가로부터의 해외 원조가 끊기고 심지어 팔로군과 신사군의 항일 소식마저도 막혀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쑹칭링은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홍콩에서 보위중국동맹(保衛中國同盟) 이하 '보맹'을 발기하고 조직했다. '전 세계 민주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노력하여 중국에 의약품과 구호물자를 공급하도록' 독려했다.

세계가 항전을 이해하고 공산당을 이해하게 하려면 우선 대외 홍보를 해야 했다. 쑹칭링은 보맹을 이끌고 전 세계를 향해 항일을 선전하며 20여 종류의 영문선전물을 출판하여 팔로군과 신사군의 용감한 실화를 알렸다. 국내외 진보인사들이 이러한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다. 이에 쑹칭링이 백단대전(百團大戰 - 1백 개 여단이 참전한 전투)에 관한 추적 보도를 주도했고, 또한 저명한 미국인 기자 스노우(Snow)가 시안(西安)에서 산베이(陝北)까지 이르며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붉을 별>>을 집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항전이 치열해 짐에 따라 공산당 군대에도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전방의 의사, 의약품 등의 의료진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했다. 외과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용품은 물과 불 그리고 소금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쑹칭링과 보맹은 지원 가능한 역량을 모두 모아 해외로부터 대량의 의약품, 의료설비, 성금 등을 겹겹으로 둘러싸인 봉쇄를 뚫고 끊임없이 항일 근거지로 수송했다.

1938년 7월, 쑹칭링이 이끄는 보맹은 우선 진차지(晉察冀 - 산시성(陝西省), 차하얼성(察哈爾省), 허베이성(河北省))항일 근거지 우타이산구(五臺山區)에 최초의 국제평화병원을 설립했다. 그 후, 옌안(延安)과 각 항일근거지에 11개소의 국제평화병원, 42개 전방 이동 의료팀과 8개소의 의과학교 및 제약공장을 잇따라 설립했다. 쑹칭링은 의료진과 외국인 의사도 대거 파견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먼 베크넬(Norman Bethune), 코트니스(Kwarkanath S. Kotnis)는 모두 쑹칭링의 도움하에 의료팀을 이끌고 진차지(晉察冀)까지 가서 의료 봉사를 했다. 항일전쟁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외국 인사와 해외 교포들도 쑹칭링의 이러한 활동에 화답하며 연이어 성금과 물자를 기부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부금 증서에 쑹칭링의 친필 서명을 받기를 바랐고 그녀는 서명을 하느라 손이 짓물러 터질 정도였지만 이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보맹 설립 1년, 성금 약 25만 홍콩달러, 트럭 10대, 담요 수천 장, 현미경과 X레이기기 등 의료장비와 전쟁터에서 쓰는 임시 천막 등 대량의 물품을 세계 각처로부터 기부 받아 팔로군의 작전을 힘껏 지원했다.

어린이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다

쑹칭링은 기부 받은 성금과 물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부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본인은 검소하게 생활했다. 단색 치파우에 쪽진 머리는 바로 오랜 세월 변함없는 그녀의 스타일이었다. 쑹칭링은 천성이 조용한 것을 좋아했지만 활달한 어린이들을 사랑했다. 여자로서 본인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그녀는 중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늘 그들의 성장에 관심을 두었다. 항전 중, 보맹이 전 세계에 뿌린 전단지에 ‘전쟁의 피해를 입은 우리의 어린이들을 구해 주세요’ 라며 강력히 호소했다. 1945년 항전 승리 이후 보맹은 ‘중국복지기금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47년 중국복지기금회는 상하이 자오저우루(胶州路)에 최초의 아동복지소를 설립하였다. 아동복지소라고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겨우 한 두 동의 함석집으로 시설은 빈약했다. 하지만 열람실, 글 공부방, 보건실 등의 시설은 갖추고 있어서 아동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영양제를 나눠주기도 하며 동시에 빈곤 아동들을 모집해 글을 깨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글 공부방의 교육 방법은 타오싱즈(陶行知)의 ‘바로 알고 바로 전해주다(即知即傳)’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졌던 친구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은 친구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독서, 노래, 소규모 공연을 가르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을 ‘어린 선생님(小先生)’이라고 불렀다. 쑹칭링은 복지소를 자주 찾아가 아이들의 학습 현황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아동복지소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허름한 함석집에서는 낭랑한 글 읽는 소리와 우렁찬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이들의 꿈을 전하고 있었다. 아동복지소의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해 쑹칭링은 지속적으로 해외 단체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기부에 친필로 감사의 답신을 보냄과 동시에 기부자들에게 기부금과 물자의 사용처와 용도를 모두 설명해 주었다. 쑹칭링의 이러한 노력으로 글 공부방은 시골마을, 열람실은 판자촌까지 확대되면서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다.

쑹칭링의 인생은 어린이 미래를 위한 활동과 연결되었다. 그녀는 어린이들을 걱정하고 어린이들의 발전에 관심을 두었다. 1950년 4월 쑹칭링은 <<아동시대>>를 창간해 세상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읽을거리를 선사했다.

1951년 9월 쑹칭링은 ‘세계평화 스탈린상’을 수상하면서 스탈린 상금 십만 루브르를 받았다. 이 금액은 그 당시 중앙기구 간부가 160년 동안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수입에 상당하는 고액이었다. 쑹칭링은 상금을 받은 후 바로 상금 뒷면에 ‘중국복지회 부녀자와 아동 복지사업 용도로 기증한다.’ 라고 적어 상금의 용도를 명시했다. 그 상금은 당시 국내외 명성이 자자한 국제평화여성유아보건병원 건립에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감격하여 이를 쑹칭링 병원이라고 불렀다.

쑹칭링은 중국 첫 소년궁인 ‘중국복지회 소년궁’을 창설했다. 1952년 12월 쑹칭링은 소련에서 소년궁을 참관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소년궁에서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방과 후 활동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상하이로 돌아온 후 쑹칭링은 바로 소년궁 건립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다. 마침 한 직원이 유명한 ‘대리석 빌딩’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쑹칭링에게 알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그 빌딩은 원래 영국 유대인 거상 엘르아잘 실라스 카두리 경(Kadoorie, Sir Eleazer Silas)의 개인 주택이었다. 아름다운 잔디밭과 이층 높이의 궁전식 건물로 20여 칸의 크고 작은 방이 있고 로비 바닥면적만도 600㎡로 성대한 연회를 열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 이 건물의 사방은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장식되었고 지붕도 모두 화려한 대리석 돔형식이며 바닥 또한 대리석으로 깔려있어 상하이 사람들은 이 건물을 ‘대리석 빌딩’이라고 불렀다. 신중국 설립 후 카두리 가족이 상하이에서의 사업을 접었다. 그 후 이 빌딩은 줄곧 비어 있었다. 쑹칭링은 즉시 그 빌딩을 빌렸고 ‘소년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1953년 6월 1일 어린이날에 소년궁이 정식으로 개관되었다. 내부에는 과학기술학습관, 실내놀이시설, 소극장과 천문관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아동복지소에서 수업을 했던 ‘어린 선생님’들은 참관 후 함석집이 대리석궁전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소년궁 설립 후 쑹칭링은 마우쩌둥(毛澤東)에게 기념글을 부탁하는 등 소년궁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녀는 67세 생일에 소년궁을 특별히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생일을 보냈다.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각종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년궁은 아이들의 진정한 낙원이 되었다. 이 또한 쑹칭링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였다.

전쟁 때에나 평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중국 해방운동, 여성·아동권익 보호, 국

제적 민간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온화하고 또 국화처럼 기품 있는 송칭링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삶을 살아갔다. 덩잉차오(鄧穎超)는 송칭링을 ‘사람 중에 제일 출중하고, 여자 중에 가장 특별하다. 연꽃보다 더 고결하고 푸른 소나무보다 더 의지가 강하다’라고 평가했다.

자오이만(趙一曼)



불굴의 항일 열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918사변(九一八事變)’이후 자오이만(趙一曼)은 상하이(上海)에서 동북지방으로 옮겨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그녀는 노동운동을 시작으로 민중의 항일 분위기를 선전하며 고무시키는 것에 전념했다. 1935년 항일 연합군 제3군 제1사단 제2대대의 정치위원을 맡은 자오이만은 항일무장대를 이끌고 적을 향해 직접 무장투쟁을 하며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만주 괴뢰 정권의 신문에서는 그녀를 ‘빨간 총을 들고 백마를 탄 밀림의 여왕’이라고 경외하듯 호칭했다.

그해 여름, 일본군은 하둥(哈東) 주허(珠河)지구에서 잔혹한 ‘토벌’을 감행했다. 11월 14일 자오이만은 50명의 전사를 이끌고 안산(安山) 마을로 갔다. 하지만 매국노들의 정보 유출로 인해 다음날 아침 만주국 군인 300여 명이 네 개의 길로 나눠 쩌페쯔거우(左撇子沟)를 향해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투는 초저녁까지 이어졌으며 항일연합군전사는 무려 여섯 차례나 적의 진격을 물리쳤다. 전투 중 왕후이통(王惠同) 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어둠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로 했고, 자오이만 본인은 남아서 엄호를 하겠다는

뜻을 굳건히 했다. 격전 중 자오이만은 왼쪽 손목에 총알이 관통하는 부상을 입고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기절해버렸다. 의식이 돌아온 후 그녀는 전우 라우위(老于), 테베이구(鐵北區)위원회 저우보쉐(周伯學) 홍보부장 그리고 여성회원과 16살의 어린나이인 양구이란(楊桂蘭) 등을 자신의 편으로 삼았다. 통신 연락병 류푸성(劉福生)으로부터 자오이만은 왕단장이 부상당한 채 포로로 잡혀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30여 명이 사살됐지만 항일연합군 제2사단 또한 뿔뿔이 흩어졌다. 일본군이 실시한 귀屯병후(歸屯并戶-흩어져 있는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한 곳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는 것) 라는 파시즘 정책으로 인해 산속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산 아래로 쫓겨 내려와 큰 마을에 내몰려졌고 자오이만 등이 은거하던 작은 천막집은 연기 때문에 금방 발각되었다. 11월 22일 오전, 일본 경찰이 그곳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정보를 수집하고 약을 사러 나가려는 류푸성(劉福生)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적에 의해 총살당했다. 자오이만은 사람들을 이끌고 총을 쏘며 반격했다. 두 시간 동안의 대치로 자오이만은 마지막 탄환까지 모두 다 써버리고 말았다. 라우위가 적들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의연히 뛰쳐나갔다가 두 걸음도 못 가서 그만 총에 맞아 쓰러졌다. 자오이만이 그 뒤를 쫓아가 구하려 했지만 '79'경 소총탄이 왼쪽대퇴골을 관통해 골절되었고, 깊게 패인 상처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와 눈발에 쓰러지며 기절하고 말았다.

흑독한 고문과 자백 강요에도 굴하지 않다

자오이만은 정신이 들면서 자신이 소달구지에 실려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우보쉐(周伯學), 양구이란(楊桂蘭)과 다른 곳에서 잡혀온 3명의 항일 연합전사들마저 그날 밤 주허현(珠河縣)으로 압송됐다. 만주국 빈장성(濱江省) 경비청 특무과 외사 계장인 오노 다이지(大野泰治)는 밤새도록 자오이만을 심문했다.

오노 다이지가 램프를 들고 자오이만의 얼굴을 비추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자오이만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자 그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오노는 말채찍을 들고 수차례 자오이만의 상처를 찌르거나 때리려고 하고 또 그녀의 손과 얼굴을 후려치며 정보를 캐물었다. 그러나 자오이만은 그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며 실토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구이란이라는 소녀는 단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시중을 드는 일반인이라고 허위진술을 했다. 일본군은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양구이란은 풀어주었다.

오노는 자오이만이 주허현(珠河縣)에 있는 공산당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며칠 후 그녀를 하얼빈(哈爾濱)으로 압송했다. 그녀를 만주국 빈장성 경무청 지하 구치소에 감금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계속해서 가했다. 자오이만의 부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상처는 깊어 놓이 생겨 생명까지 위협했다. 계속해서 그녀로부터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적들은 그녀를 하얼빈시립병원으로 들여보내 치료를 받도록 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자오이만의 부상이 호전되자 일본군은 여러 차례 교대로 병실로 찾아와 심문했다. 자오이만은 기회를 틈타 보호 경찰과 간호사에게 항일과 구국의 대의를 일깨워줬다. 동셴신(董宪薰) 만주국 경찰과 한용이(韓勇義) 여간호사는 깊이 감동 받아 자오이만과 함께 탈출 계획을 모의했다.

1936년 6월 28일 비가 내리는 밤, 세 사람은 병원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틀 후 유격지구를 20여 리 남겨놓은 채 적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자오이만은 일본군 손아귀에 다시 잡혀 들어갔고 일본군의 고문은 더욱더 잔혹해졌다. 린관중(林寬重) 일본 특수부 계장은 자오이만을 복종시키기 위해 대나무 꼬챙이와 쇠꼬챙이로 손톱에 못을 박고, 뜨거운 고춧물과 차가운 휘발유를 코와 목구멍에 쏟아 붓고, 인두로 살을 태우는 등 머리칼이 곤두서는 끔찍한 형벌을 가했다. 만주국 빈장성 관공서 경비청장인 시부야 사부로는(澀谷三郎) 일본 본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설계한 최신식 전기고문형틀을 운반해 오라고 하여 사정없이 고문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일본군의 악랄함은 극에 달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후의 선마저도 저버리고 철저히 그들의 야만성을 드러냈다. 지옥과도 같았던 치욕과 가슴이 찢겨져나가는 고통에 자오이만은 자신의 아랫입술이 으깨어 터질 정도로 깨물어 가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유서가 남긴 깊은 감동

한 달여간의 악독한 취조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다. 그러자 자오이만을 주허현으로 돌려보내 처형한 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

기로 했다.

1936년 8월 2일 아침, 자오이만은 주허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고 바로 그날 주허현 소북문 밖에서 정의를 위하여 용감하게 목숨을 바쳤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1세였다.

적군은 보고서에 ‘자오이만은 압송당하는 과정에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항일투쟁을 위하여 죽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작성했다.

자오이만은 주허현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유서를 써내려갔다.

닝아(寧兒)!

어머니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내일이면 뜻을 굽히지 않고 일제에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살아서 다시는 볼 기회가 없게 되었구나.

닝아(寧兒)!

어서 빨리 어른이 되어 땅속에 묻힌 어머니를 위로해 주렴.

사랑하는 아들이!

백 마디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더 큰 교훈이 될 것이라 믿는다. 네가 커서 성인이 되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를 잊지 않길 바란다.

1936년 8월 2일
열차 안에서 어머니 자오이만

자오이만(趙一曼)의 본명은 리쿤타이(李坤泰)이고 자(字)는 수닝(淑寧)이다. 또 다른 이름은 이차오(一超)이고 쓰촨(四川) 이빈(宜賓) 사람이다. 1923년 사회주의 청년에 가입했고 1926년 중공공산당당원으로 전환했다. 황푸(黃埔)분교 제6기생으로 대혁명이 실패한 후 소련으로 배움의 길을 떠났다.

1929년 말, 자오이만은 이창(宜昌)에서 험난한 혁명 활동을 펼치던 중 아들을 낳았다. 그날이 바로 레닌(Lenin) 사망 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에 레닌의 중국 발음 레닝‘列寧’의 님자와 자오이만 자(字)에 있는 님‘寧’자를 따와 평안과 건강

을 바라는 예쁜 소망을 담아 아들의 아명을 닝아(寧兒)라고 지었다. 자오이만은 포대기 속에 싸인 닝아를 안고 도처를 떠돌아다니며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다 1930년 4월, 혁명 활동을 펼치기 위해 찢어지는 아픔을 삼키며 아들을 양자로 보냈다.

자오이만은 혁명을 위해 가정을 등지고 아들까지 저버리며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 부서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자오이만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실제 영웅담은 후세의 많은 중국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린차오즈(林巧稚)



의학계 어머니

시험장에서 목숨을 구하다

1921년 상하이(上海)의 한여름 무더위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시험장 내에는 시험지에 글을 쓰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린차오즈(林巧稚)라고 하는 여성이 이마의 흐르는 땀을 살며시 훔쳐 가며 정신을 집중해 베이징(北京) 세허(協和)의학대학 입학시험의 마지막 과목이자 그녀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영어 시험문제를 풀고 있었다.

시험장 내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더위를 먹은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감독관도 순간 당황했다. 린차오즈는 그 상황을 보고 작성을 다 끝내지도 못한 답안지를 뒤로 한 채 쓰러진 수험생에게 달려가 그녀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자 린차오즈는 서둘러 시험장으로 돌아갔지만 시험은 끝나버렸다.

그 당시 베이징 세허의학대학은 의학계에서는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의과대학으로 이번 시험은 전국에서 25명만 모집했다. 합격 문턱은 매우 높았고 여성이 합격하는 확률은 매우 낮았다. 문제를 다 풀지 못한 린차오즈는 상심한 마음을 끌어안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한 달 후, 뜻밖에도 린차오즈는 베이징 세허의학대학의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 날 시험 감독관이 시험이라는 중요한 상황을 뒤로한 채 선행을 베푼 그녀의 행동을 보고서로 작성해 영어시험지에 첨부한 후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학교 측은 그녀의 종합 성적표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품행과 학업이 훌륭한 학생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린차오즈의 나이 20살에 그토록 바라 마지않던 베이징 세허의학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의료에 종사하다

1929년 졸업 후, 산부인과 의사로 임용된 린차오즈는 세허의학대학 졸업생 중 최초의 중국인 여의사가 되었다.

중국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부속품에 불과했다. 비록 20세기가 되었지만 직업여성이란 여전히 봉황의 깃털과 기린의 뿔과 같은 희귀한 존재였다. 어렸을 때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은 린차오즈는 일찌감치 ‘비범한 사랑을 품고 평범한 일을 하자’라는 이상을 세웠다. 세허의학대학에 ‘여자 인턴과 여자 레지던트는 결혼금지’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린차오즈는 망설임 없이 ‘가정을 갖지 말고 내 일에 충실하자’라는 삶의 길을 선택했다. 그 후 결혼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직위에 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 가정과 아이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환자에게 쏟아야 할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두려웠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신념을 평생 고수했다.

세허의원의 승진제도가 매우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린차오즈는 오히려 레지던트 보조에서부터 레지던트, 치프 레지던트까지 1년에 한 계단씩 승진했다. 1932년 총괄 레지던트로 부임한 1년 후 린차오즈는 영국 맨체스터의대와 런던산부인과병원으로 파견연수를 갔다. 1939년 그녀는 다시 미국 시카고로 파견되었고 산부인과 분야 의학연구에서 계속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1940년 린차오즈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무렵 ‘미국 자연과학 명예학회회원’이 되었고 아울러 이 학회에서 주는 황금열쇠를 수상하는 영광까지 누렸다. 귀국 후, 그녀는 세허의원 최초 중국 국적의 산부인과 주임이 되었다.

1941년, 베이징 세허의원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폐쇄되었다. 린차오즈는 베이징

에 남겠다고 고집하며 골목에 부인과 진료소를 열어 각 계층의 여성들을 치료했다. 또한 종종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비 특혜를 주거나 무료 진료를 했고 심지어 당나귀를 타고 농촌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린차오즈의 의술은 뛰어났고 사람됨은 겸손하고 온화했다. 그녀는 환자를 치료할 때 차분한 말투로 어떻게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녀는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안타까워 다정하게 보살피며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면 주사를 놓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 치료비에 드는 부담을 줄여주었다. 빈틈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직업정신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린차오즈가 얼마나 많은 여성과 영아의 목숨을 구했는지 모른다. 그녀가 보관하고 있는 출생 기록카드 중에는 린차오즈와 사연이 깃든 양린(仰林), 징린(敬林), 쓰린(思林), 넌린(念林) 등의 이름들도 있다. 많은 어린이들은 성인이 된 후 그녀를 ‘린마마(林妈妈-린 언마)’라고 부르며 안부의 편지를 보내곤 했다.

과학 연구에 주력하다

1950년대 이후, 린차오즈는 진료나 분만을 돕는 일 외에도 가족계획과 중국 최초 산부인과 연구 기관 등의 설립을 준비하는 데 분주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장하고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투했다. 그녀는 세허의원의 각종 부인과 질병에 관한 기록 자료와 기형 태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많은 희귀 난치성 부인과 관련 질병과 불치병에 영향력 있는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그 연구 성과는 중국은 물론 세계 의학계의 공백을 채워주었다.

린차오즈의 탁월한 의술과 숭고한 정신은 정부와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1959년, 그녀는 중국과학원 학부위원에 추천되었는데 당시에는 유일한 여성학부 위원이었다. 린차오즈는 중화의학회 부주임(최초의 여성부주석), 베이징산부인과 의원 원장, 중국의학과학원 부원장 등을 맡았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와 정협위원에도 당선됐다.

1983년 4월 22일, 린차오즈는 향년 82세로 베이징에서 병환으로 숨을 거두었다.

당시 그녀를 애도하는 추도회장에는 이러한 대련이 걸려 있었다. 대련의 상련에는 '산부인과 의료업을 개척하고, 기반을 확립하여, 원대한 계획을 전개하며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리고 이제 봄에 누에가 명주실을 토해내고 죽어가듯 고요히 긴 잠에 빠졌다.(創産婦事業, 拓道, 奠基, 宏圖, 奉獻九竅丹心, 春蠶絲吐盡, 靜悄悄長眠去.)' 대련의 하련에는 '모자의 건강, 생명 구조, 상처 치료, 당업과 민생을 도모했다. 미소로 천만 백발을 물들이고 촛농은 재가 되며 인간세상을 밝게 비춘다.(謀母兒健康, 救死, 扶傷, 黨業, 民生, 笑染千萬白發, 蠟炬淚成灰, 光熠熠照人間.)'라고 쓰여 있다. 이는 아무런 사심 없이 오롯이 헌신한 린차오즈의 일생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빙신(冰心)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다

자혜로운 부모님과 유년시절

20세기 중국의 걸출한 여류작가 빙신(冰心)의 본명은 세완잉(謝婉瑩)이다. 그녀는 진보적 성향의 해군 군관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즐거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이 이수한 체계적인 현대과학과 문화교육의 영향으로 넓은 봉건적 예절과 법도로 딸을 구속하지 않았고, 어린 빙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했다. 심지어 빙신은 어릴 적에 남장을 하고 아버지와 승마, 사격, 군함 견학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지극히 온유하고 조용한 여성'으로 전통적인 여성의 온화하고 정숙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빙신에게 우수한 교육과 위대한 사랑을 내어주며 어머니의 신성하고 소중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인자하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어린 빙신은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훗날 그녀가 쓴 산문에서 그때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의 삶에는 오로지 꽃과 빛 그리고 사랑뿐이다. 나의 삶엔 축복만이 있을 뿐 저주는 없다.' 화목한 가정은 빙신에게 '사랑'이라는 철학을 형성하게 한 가장 큰 요소였다.

타고르의 영향

빙신은 “5.4”운동 시기에 많은 외국 소설과 산문을 접했다. 바로 그 때 그녀는 인도 시인 타고르(Rabndranth Tagore)의 작품을 읽게 되었는데 한 눈에 반하고 말았다. 타고르는 빙신이 ‘젊은 시절 가장 사랑한 외국 시인’이었다. 철학자이자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타고르는 그녀의 ‘사랑에 관한 철학’과 인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타고르의 ‘길 잃은 새’의 영향을 받은 빙신은 타고르를 모방하며 제목 없는 자유로운 단편시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훗날 이런 부드럽고 수려하며, 맑고 깨끗한 단편시를 모아<<뭇별(繁星)>>과 <<춘수(春水)>>를 출판했다. 사람들은 이를 ‘춘수체’라고 불렀다. 대자연을 향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깊은 예찬, 유년 시절과 동심을 소중하게 찬미하는 것이 이 두 책의 기조가 되었다.

<<뭇별(繁星)>>과 <<춘수(春水)>> 이 두 작품의 창작 과정을 통해 그녀의 ‘사랑에 관한 철학’의 기본이 확립되었다.

‘사랑’과 ‘동정’이 ‘생명’이라는 두 갈래 길을 걸어가며 수시로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운다. 끊임없이 긴 이 길 위에는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사람들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며 가시나무를 밟아도 아픔을 느낄 수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구슬프지 않게 한다.’는 이 글은 빙신의 평생 좌우명이 되었다.

우아한 산문

비록 처음에는 시로 명성을 얻었지만 산문이야말로 빙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학 형식이었고 또한 그녀의 창작 중 최고의 성과를 얻은 분야였다. 1921년 문학연구회에 가입한 후 빙신은 잇따라 <<웃음(笑)>> 과 <<지난 일(往事)>>이란 산문을 발표했다. <<웃음(笑)>>은 아름답고 정교하여 신문학운동 초기에 저명한 미문이 되었다. <<지난 일(往事)>>과 <<지난 일 2(往事 二)>> 두 편의 산문은 모두 자신의 지난 삶에서 소재를 취해 그 위에 철학과 윤리를 담아 감정을 나타냈다. 정교한 문장 구성, 참신한 필체, 아름다운 이미지의 글귀는 작가의 부드러운 서정과 풍부한 상상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독특하고 우아한 품격의 산문을 구성했다.

1932년 빙신은 옌징(燕京)대학 문(文)과를 졸업한 후 미국 웨일스여자단과대학에서 영국문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여행과 타국에서 얻은 견문을 산문체로 적어 중국으로 보내 <<어린 독자들에게 보내다>>를 펴냈다. 이 책은 진선미를 찬양했고 세상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일일이 설명하며 천진난만한 시각으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했다. 이런 산문은 경쾌하면서 심오한 아름다움을 풍기고 간결하면서도 깔끔했다. 빙신이 보여준 수준 높은 예술적 표현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한 세대를 풍미한 산문의 대가가 되었다.

깔끔하고 향기로운 술

그 후 수십 년 동안 빙신은 계속해서 글을 쓰며 수없이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가 별세한 후 그를 회상하는 여러 형식의 문장들이 속출했는데 그 중<<납팔죽(臘八粥)>>이라는 책의 내용이 남달랐다. 그녀는 이 책에서 대대로 이어온 음력 12월 8일 납팔죽을 끓이는 풍속을 통해 삼대(三代)에 걸친 사람들이 존경하는 저우총리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했다.

작가는 부드러운 필치로 어머니가 납팔죽을 끓이던 지난날을 서술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존경하는 저우총리, 저우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라며 납팔죽을 끓이는 장면을 묘사했다. 문장 전체는 엄숙함과 경건함 그리고 꾸밈없는 감동을 주는 힘이 담겨 있어 독자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항전 시기에 쓴 <<작은 굴 등(小橘燈)>>은 독창적인 예술 구상을 통해 생동감 있게 철 든 소녀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소녀는 용감하고 낙관적이었으며 ‘나’를 위해 ‘작은 굴 등’하나를 만들어 ‘내’가 갈 산길을 밝혀주었다. 글을 읽고 있으면 항전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광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무한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세월의 아픔을 겪은 빙신의 산문은 날이 갈수록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져 마치 오랫동안 숙성된 향기로운 술과 같이 독자들을 더욱 도취하게 하는 향기를 뿜어냈다.

셰시더(謝希德)



신중국 최초의 여성 대학 총장

병약한 소녀에서 유학파 박사가 되다

셰시더(謝希德)는 1921년 푸젠(福建) 취안저우(泉州)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셰위밍(謝玉銘)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 물리학계의 저명한 학자이다. 셰시더는 어릴 적부터 허약하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총명하고 독서를 즐겼다.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수많은 도서는 무한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옌징(燕京)대학 물리학과 우수 여학생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물리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저절로 여성도 물리학을 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1937년 일본이 대대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중국국민들이 내륙 쪽으로 피난을 갔다. 셰시더는 가족들을 따라 베이징(北京)에서 우한(武漢)으로 옮겼다가 다시 창사(長沙), 구이양(貴陽) 등 지역을 전전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전란의 고통을 가슴 깊이 느꼈다.

병마 또한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1938년에 그녀는 고관절결핵을 진단 받았다. 이 병은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는 4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어야만 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시더는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고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기적처럼 병마를 이겨내며 건강을 되찾았다. 또한 그녀는 병상에 있는 때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책을 읽었다. 그녀는 수학과 물리학을 독학하였고 사전을 펼쳐 놓고 다량의 영문어 책을 읽었다. 가끔 공습을 피해 큰 나무 밑으로 숨었을 때에도 그녀는 곳곳하게 책을 읽었다. 이런 부지런한 학습의 힘은 그녀가 훗날 과학 연구에 종사할 때 견실한 기초가 되었다.

4년 후 세시더의 건강은 좋아졌으나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끝까지 굽혀지지 않았고 평생 장애로 남았다.

전란과 병마로 인해 세시더는 세 번씩이나 대학시험에 응시해야만 했다. 1938년에 치른 첫 번째 시험은 후난(湖南)대학에 응시한 것으로 합격은 했으나 병마로 인해 입학이 좌절되었다. 두 번째 시험은 1942년 여름 당시 구이양에서 가장 가까운 저장(浙江)대학 물리학과에 응시해 합격하지만 아버지가 전란기간 중 그녀 혼자 그곳에 남아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에 세시더는 가족과 함께 푸젠(福建)으로 이사를 했고, 당시 아버지가 교수로 재임 중이던 샤먼(廈門)대학 물리학과에 무난하게 합격했다. 샤먼대학에 있는 동안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고 품행과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기상하는 그녀는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실험을 하면서 수많은 해를 하루처럼 살며 재학 중 줄곧 천자경(陳嘉庚) 장학금을 받았다.

1947년 세시더는 바다건너 멀리 외국 유학길에 올랐다. 우선 미국 스미스여자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후 세계 일류 대학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엄격한 과학 연구 정신과 남다른 통찰력을 키워나갔다.

‘중국 반도체 과학의 어머니’

국내외 도처를 떠돌아다니며 배움을 구하는 길에서 세시더는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고난을 몸소 겪으며 ‘과학으로 조국을 구하자’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세웠다. 신중국 수립 후 그녀는 영국에서 유학하던 남편 차우텐친(曹天欽)과 함께 해외에서 제시하는 우월한 조건을 다 포기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조국의 품으

로 돌아왔다.

당시 중국은 과학 사업이 막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많은 과학연구 인재를 필요로 했다. 세시더는 푸단(復旦)대학 물리학과에 배정되어 교편을 잡았고 의연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인성을 키운다는 중책을 내걸며 조국의 과학교육사업 발전에 뜨거운 열정을 바쳤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그녀는 강의를 하면서 푸단대학에 광학, 역학, 이론역학, 양자역학, 고체물리학 등 많은 물리학 과목을 개설하였고 푸단대학의 부족했던 교사 역량과 교과 개설의 힘겨운 상황을 변화시켰다.

1956년 교육부가 베이징대학에 전국 5개 대학을 연합한 반도체 팀을 조직했는데 세시더가 부주임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태어난 지 막 5개월 된 아들을 두고 베이징으로 향했다. 베이징대학에서의 2년여 시간 동안 그녀는 피곤함도 잊은 채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다.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책을 쓰면서 베이징대학의 황쿤(黃昆)교수와 함께 힘을 모아 <<반도체물리학>>을 편찬해 조국을 위해 성공적으로 1세대 반도체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냈다.

1958년 상하이로 돌아간 세시더는 자신의 힘으로 상하이 기술물리연구소와 상하이 기술물리학교를 차례로 창설하였고 이와 관련된 과제연구를 했다. 또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대학교수와 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고체물리>> 등과 같은 교재들도 출간하였다. 세시더는 신중국 반도체물리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중국 반도체과학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푸단(復旦)대학교 총장이 되다

‘문화혁명’기간에는 세시더가 가장 애착을 갖는 과학연구직을 박탈당했다. 또한 그녀는 세 차례나 암이란 병마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굳건한 의지와 달관한 태도로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과학에 찾아올 따뜻한 봄날만을 기다렸다. 그 후 그녀는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와 푸단대학 표면물리학연구센터의 설립을 이끌며 중국표면물리학연구를 촉진하였고 이로써 중국표면물리학연구의 공백을 채웠다. 또 단시간 내 푸단대학에 있던 물리학과와 핵 과학과에 8개 연구실을 신설하였다. 그녀는 조국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가르침을 게을리 하

지 않으며 중국표면물리학연구의 창시자이자 선구자가 되었다.

1983년 세시더가 푸단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신중국 최초 여성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그녀는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푸단대학 총장으로 있는 10년 동안 중국내 종합대학에 문과와 이과만 있는 기존 구조를 깨고 ‘지도교사’ 육성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푸단대학과 해외대학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푸단대학이 국내와 국외에서 저명한 대학으로 자리 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

세시더는 또한 유명한 사회활동가로서 국내외 과학기술과 문화교육에 힘썼다. 1966년 그녀는 중국고체물리대표단 단장으로 단원을 통솔하여 영국물리학회 고체물리학술회의에 참석해 외국 물리학자와 함께 학술교류를 했다. 말년에 그녀는 미국물리학회에서 주최하는 고위급 3월회의(APS March Meeting)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국제적 최신 연구 성과의 이해도를 높였다. 그녀는 푸단대학 캠퍼스에서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프랑스 대통령,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미국 대통령과 슐츠(Schultz) 국무총리, 클린턴(Bill Clinton)내외 등 외국 정상들의 방문을 영접했고 또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양전닝(楊振寧), 리정다우(李政道) 등 저명한 물리학자들을 접대했다. 그녀는 놀라운 기백으로 푸단대학에 미국연구센터 건립을 제의하며 중미 양국의 우호와 교류의 교량이 되고자 했다.

2000년 3월 4일 병마와의 마지막 사투 끝에 이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사회 활동가였던 세시더는 향년 79세로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과 학 천 재

잔텐유(詹天佑)



중국 철도의 아버지

중국 최초의 철도를 설계하다

중국 철도 관련 이야기를 할 때면 이 사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잔텐유(詹天佑)이다. 잔텐유의 지휘 아래 중국인은 자력갱생하고 전력을 다해 분발하여 천신만고 끝에 중국 자체 건조한 첫 번째 철도인 징장철도(京張(베이징(北京)-장자커우(張家口)))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이것은 중국 철도건설 역사상 위대한 기념비적 사건이다.

잔텐유는 청나라 말기 사람이다. 그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조국을 사랑하였다. 어릴적부터 영국, 프랑스의 침략에 저항하는 수많은 영웅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었고, 청나라 통치자들의 부패와 무능함도 보았다. 12살이 되던 해, 잔텐유는 국비 유학시험에 합격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잔텐유는 처음 기차를 보았고 그것은 곧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한 번은 기차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객차 안을 훑어보며 “미국 기차 정말 잘 만들었네, 우리 중국에도 이런 기차가 있어야 할 텐데”라며 혼잣말을 했다. 옆에 있던 미국인이 그 소리를 듣고 못 마땅한 듯 “중국은 철도도 건설하지 못하면서 기차가 있었으면 한다고?”하며

비웃었다. 혈기왕성한 잔텐유는 그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 그때부터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해 장차 조국에 철도를 건설하리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다. 3년 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1888년 잔텐유는 텐진(天津)에서 철도 엔지니어가 되었고 그는 매우 기뻐했다. 당시 중국은 이미 철도건설을 시작하긴 했지만 모두 외국인이 건설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잔텐유는 철도사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중국인 손으로 철도를 건설하리라고 홀로 맹세했다.

1905년 5월, 청나라 중앙정부에서 징장철도 건설 지시가 내려졌고 잔텐유는 수석 엔지니어로 임명되었다. 드디어 중국인이 자주적으로 철도건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러시아 양국이 모두 징장철도 부설권 경쟁에 뛰어들어 향후 철도와 관련된 각종 이익을 점유하려 했다. 그들은 ‘이 부근의 산은 높고 길은 험준해 중국인 자력의 기술로는 절대로 건설할 수 없다’고 떠들어 댔다.

중국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됐다. 어떤 이는 ‘잔텐유가 단 한 번도 이런 험준한 곳에 철도를 건설한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겠냐?’라고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잔텐유는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디서 또 다른 중국 철도 엔지니어를 구해 오냐?’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잔텐유의 능력이라고 해 봤자 고작 석탄 운반 철도 수리 일 텐데, 징장철도 같이 큰 공정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 했다. 각종 비난과 방해가 펼쳐지는 상황에도 잔텐유는 의연히 막중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신중하게 책임을 지다

잔텐유는 수석 엔지니어로서 매일 공정 기술자들과 함께 직접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한번은 그가 팀원들을 데리고 측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세차게 불어 닥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측량 중이던 사람들은 서둘러 측량한 숫자를 메모한 뒤 곧바로 암벽 아래로 내려왔다.

잔텐유는 측량한 기록을 받아 들고 숫자를 보더니 “강풍 속 측량이긴 하지만 숫자는 정확히 확인한 것입니까?”라며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측량 대원이 대답했다.

잔텐유의 얼굴색이 변했다.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함입니다. 조금의 경솔함과 망설임도 있어선 안 됩니다. 하물며 이번은 우리 중국인 자력으로 철도를 건설하는 것인데, 만약 실수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바로 외국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이어서 잔텐유는 측량기를 등에 업고 모래바람을 무릅쓰며 곳곳하게 암벽 위에 올라 다시 한 번 철저히 측량했고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바로 이런 신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와 뜨거운 애국심으로 잔텐유는 모두를 이끌어 나가며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갔다. 또한 철도건설의 원가를 절감하고 독창적인 스위치 열차방법을 설계하여 전체 공정날짜도 앞당겼다.

1905년 12월 12일, 징장철도가 정식 착공됐고, 4년 후인 1909년 9월 24일 당초 계획한 것보다 2년 앞당겨 준공했다. 이는 중국 철도건설 역사에 빛나는 기록으로 남겨졌다. 1909년 10월 2일 베이징에서 장자커우를 잇는 징장철도는 난커우(南口)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열었다.

훗날 잔텐유를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은 칭룽차오(靑龍橋)역에 잔텐유 동상을 세워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걸출한 공헌과 위대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

마오이성(茅以升)



미국에서도 1 등이다

어린 시절 교량과 관련된 기억

1916년 외항선 한 척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다. 그 배는 먼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는 배였다. 갑판 위에 한 젊은이가 한참동안 정신을 집중하고 서 있었다. 그는 주변에 양복을 입고 가죽구두를 신은 승객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또 부둣가 여기저기서 주고받는 작별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기적소리를 울리며 증기선이 출항하기 시작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렇다. 눈앞에 왁자지껄한 인파를 바라보던 그는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은 전통명절인 단오절이었고 고향인 친화이허(秦淮河)에서는 용선(龍舟) 경기 준비가 한창이었다. 배는 모두 일자형으로 나열되었고 징과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종소리가 울리자 몸집 좋은 사내들이 있는 힘껏 노를 저었고, 부둣가에서 울려 퍼지는 관중들의 함성소리에 맞춰 배는 쏜살같이 물길을 가르며 나아갔다.

“으샤! 으샤!” 윈더(文德)다리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격하게 주먹을 휘두르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였고, 흥분한 나머지 두발을 구르기도 했다. 모두들 팔을 걸어붙이고 배에 뛰어올라 함께 하지 못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용선 경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윈더(文德)다리 위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분위기도 점점 고조되어갔다. 갑자기 쿵하는 큰소리와 함께 원더(文德)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물에 빠졌고 일순간 부두와 다리 밑에는 울부짖는 소리,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난 반드시 정말 튼튼한 다리를 만들 거야’ 젊은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부둣가의 인파를 바라보며 입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중얼거렸다.

바로 이 사람이 훗날 중국의 저명한 교량학 전문가이자 중국 토목 공정학회 이사장이 될 마오이성(茅以升)이다. 당시 그의 나이 20세였다.

마오이성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우수한 성적으로 국비지원 미국 코넬대학 대학원 입학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마오이성은 그중 가장 특출한 학생이었고 탕산(唐山)공업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바로 코넬대학에 합격하게 됐다.

외국인 교수들의 논쟁

마오이성은 코넬대학 교수들이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학생 때문에 계속 논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다.

“탕산(唐山)공업전문학교? 이걸 어디서 솟아난 대학이죠?” 한 교수가 불신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게, 조그마한 탕산에서 무슨 우수한 학생이 나오겠어요?” 수염이 덩수룩한 또 다른 교수가 맞장구를 쳤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마오 학생이 바로 이번 시험에서 일등을 한 사람입니다.” 교무부장이 모두를 일깨워주듯 말했다.

“일등? 흥! 어떻게 일등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털보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제가 보기에 일단 돌려보내고 칭화(淸華)부터 졸업한 다음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또 말했다. “돌려보내요? 멀리서 온 사람을 당신 말 한마디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너무 경솔한 거 아닌가요.” 줄곧 침묵하고 있던 헨리 교수가 말을 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탕산공업전문학교라는 곳에 대해 어디 한번 얘기해보세요.” 털보 교수는 여전히 트집을 잡았다.

“조용, 조용히 하세요.” 학자의 품격이 물씬 풍겨나는 코넬대학 총장이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내저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코넬대학의 훌륭한 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명성은 전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노력에서 얻은 성과입니다.” 코넬대학 총장은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동지들을 돌아보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질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 마오씨 이름이 중국 정부에서 추천한 명단에 첫 번째로 올려져있었고, 일등 또한 유명무실하진 않겠지요.”라며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 총장은 교무부장에게 “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교무부장은 경험이 매우 많은 노교수였다.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재빨리 해답을 내놓았다. “이렇게 하시죠. 총장님, 마오이성을 미국 학생들과 함께 입학시험을 다시 치르게 한 후 만약 통과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고, 만약 시험성적이 예상을 빚나간다면 돌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교수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 전까지 팽팽히 맞서던 교수들은 순식간에 의견 일치를 보며 “마오에게 시험장에서 실력을 보여주라고 하시죠.”라고 말했다.

또 일등을 하다

마오이성은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장시간에 걸친 여정 후 당당하게 입학등록을 하러 갔다. 교무부장은 정식으로 “마오씨, 학교 측은 우선 당신이 반드시 재시험을 봐야만 입학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말했다.

“왜 그렇습니까?” 마오이성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우리는 당신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교무부장이 매우 품위 있게 말했다.

“이건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잖아”라며 함께 온 학생들은 불합리한 처사에 열을 올렸다.

“흥분하지 마, 학교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야”라고 마오이성이 말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처리를 하냐고. 마오이성, 우리 같이 총장님을 찾아가 보자.” 친구들은 마오이성을 잡아당기며 가려 했다.

“모두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마오이성은 정신을 가다듬고 두 손은 친구들을 붙잡으며 “나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러니 다들 어서 가서 등록이나 해.”라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어서 마오이성은 교무부장에게 “학교에서 필요로 한다면 시험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 하며 마오이성은 잠시 멈췄다가 눈을 깜박깜박 거리며 “이번에는 아마도 미국학생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교무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서 “마오씨, 성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며칠 후, 얼굴에 함박 미소를 머금은 총장이 교실로 들어오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마오이성씨가 우수한 성적으로 본교 입학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응시자 중에서 마오씨가 일등을 차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단해, 마오이성, 축하해.” 친구들이 서로서로 앞 다뿔 나오며 마오이성의 손을 붙잡았다. 마오이성 본인도 흥분된 나머지 얼굴이 빨개졌다.

“이어서 두 번째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총장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주위의 학생들을 한번 돌아보고는 “마오씨가 보여준 훌륭한 모습에 향후 탄산공업전문학교 학생이 코넬대학에 연구생으로 올 경우 입학시험을 면제할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와!” 마오이성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는 탄산학교의 자존심을 지켰고 더 나아가 중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오씨 잘 해 보세요. 졸업 할 때까지 여전히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총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국 후 많은 교량을 건설해야 하니까요.”하고 말하며 마오이성은 다시 한 번 선상에서 맹세한 다짐을 떠올렸다.

몇 년 후, 마오이성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했다. 그는 석사와 박사학위까지도 취득한 상태였고 톈진(天津) 북양대학에 교수로도 임용되었다.

1933년 중국 최초로 자체 설계, 건조한 현대식 철교인 항저우(杭州) 첸탕장(錢塘

江)대교를 착공하였다. 공정의 총책임자는 바로 왕년에 미국에서 일등을 한 마오이성이었고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였다.

주커전(築可楨)



꽃이 알려준 사실

대자연에서 꽃이 피고 개구리가 우는 것을 이해하자

여명이 밝아왔다. 베이징의 한 전통 사합원(四合院-북경의 전통 주택 양식으로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사방이 모두 집채로 둘러싸여 있음)안은 고요했고 아침 일찍 일어난 새들만이 지저귀고 있었다. 분명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에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체구는 작지만 고상함을 풍기는 안경 쓴 중년 남자가 방문을 나왔다.

그는 마당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몸속에서 온도계 하나를 끄집어냈다. 이상하다. 무얼 하려는 것일까? 오직 보이는 건 온도계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고 바로 오래된 회나무 아래로 간 다음 다리를 쭉 뻗고 허리를 굽히며 아침 운동을 하는 모습이였다 .

그가 바로 중국 기상현대화사업의 창시자이며 기상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주커전(築可楨)이다.

“안녕하시오 주 선생.” 맞은편 이씨 할아버지가 이제 막 문발을 들어 올렸고 쾌활한 소리가 전해왔다. 매일 이 시간 그들은 마당에서 만난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주커전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인사를 건넸다.

“주 선생, 아무래도 올해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따뜻한 바람이 불 때가 됐

는데 어째서 아직도 기미가 없을까?”하며 이씨 할아버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투로 말했다.

“맞습니다.” 주커전은 허리를 쪽 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에 상산(香山)을 둘러보러 갔는데 예전 같으면 개구리가 벌써 앵두개울에서 펄쩍거렸을 텐데 올해는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더군요.”라고 말했다.

주커전은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 두었던 온도계를 주워들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는 수성 펜과 근무 기록노트를 꺼내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했다.

“날씨가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최근 몇 년간 자료를 찾아 변화를 한번 대조해 봐야겠어요.”라고 하며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할아버지 기상청에 가봐야겠어요, 나중에 빌게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봅시다, 주 선생.”

이 명성 높은 기상학자는 뭐가 이렇게 바쁜 걸까? 그는 왜 자연으로 돌아가 개구리 소리, 제비의 날갯짓과 꽃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을 관찰한 걸까? 주커전의 연구 분야를 “물후학(物候學)”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연계에 생물이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학 분야이다.

마을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다

주커전은 기상청으로 통하는 길을 가다 잠시 멈춰 서서 개울가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살구나무 결순을 보기도 하며, 노트에 계속 무언가를 기록했다. 원래 그리 길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는 이곳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다.

“주 선생님 오셨습니까!”라고 문지기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면서 “교외에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습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말에 주커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사무실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고 주커전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모두들 일어서서 반겼다. “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것 참, 또 선생님 업무에 지장을 드리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라며 얼굴색이 검고

연륜이 있어 보이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어려워 마십시오.” 주커전은 미소를 머금고 손을 내저으며 “여러분이 마을 소식을 전해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려도 모자란데 어떻게 시간 낭비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편하게 앉으세요.”하고 주커전이 말했다 .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주커전도 의자를 끌어다 앉으면서 “제가 도울 일이 생겼습니까?”하고 물었다.

“주 선생님, 저희가 가져온 이 땅콩 씨앗을 한 번 보십시오. 초봄에 심었는데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얼굴색이 검은 남자가 가져온 작은 자루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주커전은 씨앗을 보고서 “얼었군. 얼었어.”라며 중얼거렸다.

“언제쯤 심은 것입니까?” 주커전이 땅콩을 손에 들고 얼굴색이 검은 남자에게 물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이 시기에 파종을 하는데, 이런 일어난 번도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색이 검은 남자는 마을 토박이 같았고 마을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다는 듯 말하는 모습에서 얼어버린 땅콩 때문에 상심이 큰 기색을 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주 선생님, 농부는 모두 음력 절기를 기준으로 일을 합니다. 춘분, 하지, 처서, 입추에 무얼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뭔가가 맞지 않고 흉년이 될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하고 연세가 지긋하신 마을 사람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농사가 흉년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커전은 조용히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

“그래도 하늘이 도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주커전 말에 “주 선생님 농담도 잘하십니다.”하며 모두들 웃었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땅콩이 얼게 된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주커전의 말에 사람들이 공감했다.

“주 선생님, 또 다른 고견은 없으신가요? 선생님은 이 방면에 전문가이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하고 어르신이 겸손하게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늘 저를 띄워주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 같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커전은 얼어버린 땅콩을 보며 잠시 생각에 빠졌다.

주커전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더니 문득 무언가 떠오른 것 같았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 기온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1962년 그 해 봄 날씨는 확실히 예전과 달랐다. 버찌나무, 살구나무와 라일락의 개화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주커전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올해 베이징에 봄이 늦게 찾아와 저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땅콩 씨앗이 얼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 판단입니다.”라고 말했다.

주커전은 잠시 생각을 하고 난 후 “이렇게 하시죠, 모두들 우선 집으로 돌아가 계시고 저는 자료를 좀 더 확인한 후에 이 현상의 원인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년을 하루같이 경험을 쌓고 연구하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배웅한 후 주커전은 자료실에 들어박혔다. 잠시 후 두꺼운 기상기록카드를 한 묶음 들고 나오더니 이어서 서랍을 열고 몇 권의 노트를 꺼냈다. 손때 묻은 노트는 오랜 세월 주커전이 누적하고 쌓아온 것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었다.

기상기록에는 1962년 베이징은 따뜻한 봄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매우 느렸고 한 달 사이 기온의 상승폭도 매우 낮았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주커전의 수첩에도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에 주커전은 ‘1962년 베이징의 버찌나무, 살구꽃, 라일락의 개화 날짜가 1961년에 비해 10일이 늦었고 1960년에 비하면 닳새에서 엿새 정도 늦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물후학적 관측 결과 1962년의 농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땅콩의 파종 날짜도 미뤄야한다.’는 답을 내 놓았다.

원인이 밝혀지자 주커전은 펜을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심도 있는 연구조사를 통해 올해 베이징 봄 날씨가 비교적 춥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봄이 오는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농촌의 파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주변 버찌나무와 살구나무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그것들이 제시기에 꽃이 핀다면 주저 말고 파종을 하시고, 개화시기에 다른 변화가 발생하면 땅콩 파종시기도 이에 맞춰 연기하거나 미리 준비 하십시오, 그래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커전은 물후학이 농업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 그는 물후학과 관련된 전문 서적을 집필해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주커전은 마침내 그의 파트너인 완민웨이(宛敏渭)와 함께 수십 년 동안의 관찰과 경험을 총망라하여 그래프 하나 하나, 데이터 하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인 <<물후학>> 자료집을 완성했다.

량쓰청(梁思成)



인민영웅기념비

동서양 학문에 통달하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중국 베이징 칭화(淸華)학당에서 공부를 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학과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서양건축사 연구를 계기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 고대건축 정복을 통해 저명한 건축역사학자이며 건축교육학자가 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명성이 대단한 량쓰청(梁思成)이고, 그의 아버지는 근대 중국의 풍운아라고 불리는 량치차오(梁启超)이다.

량쓰청은 고대와 현대, 중국과 외국의 건축분야에 박식하고 정통했다. 그가 집대성한 고궁에 관한 연구로 명·청 시대의 거대한 궁궐 건축양식이 비로소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또한 그와 그의 조수들은 산과 들로 다니며 숨어있던 유명한 옛 사찰들을 찾아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나게 했다. 이 밖에도 량쓰청은 그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국 건축의 화려한 획을 확실히 그었다. 그중 인민영웅기념비의 설계는 량쓰청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흐트러짐 없는 작업세계를 충분히 느끼게 했다.

병중에도 회의에 참석하다

신중국 수립 후, 많은 사람들이 중화민족 해방운동을 위해 희생한 혁명 열사들을 위한 비석을 세우고 전기를 쓰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러한 제안은 신속하게 받아들여졌다.

1951년 전국정협(전국정치협상회의)은 각 분야 인사들에게 인민영웅기념비의 설계방안을 공모하자고 제의했다. 칭화(淸華)대학, 난양(南洋)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과 관련 전공 부서는 공모에 참가하였고 놀라울 정도의 수많은 방안을 제출했다. 하루는 설계위원회 개최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몇 개의 예선을 통과한 설계방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

바로 그 시각 유명한 건축가 량쓰청은 고풍스러운 정원이 있는 매우 평범한 집에 최근 발생한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 요양을 하고 있었다.

“후이인(徽因), 오늘은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군요.” 침상에 누워있던 량쓰청이 몸을 일으키고 앉아 집안에서 분주히 일을 하고 있는 아내 린후이인(林徽因)에게 말했다.

“쓰청, 당신 왜 또 나가시는 거예요? 환자가 꼭 쉬어야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지요.” 린후이인은 속상한 마음에 재빨리 다가와 량쓰청을 붙잡았다.

“오늘은 아무데도 못 가요, 집에서 몸조리해야 해요.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해도 좋고 건축 계획 얘기를 해도 좋아요, 제가 옆에서 벗해줄 테니 나가는 건 안 돼요.”라고 말했다.

린후이인에게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왜냐하면 과거 량쓰청과 함께 미국에서 서양건축사를 공부했고 귀국 후에는 산과 계곡을 함께 넘나들며 사찰을 돌아다녔다. 위로는 궁궐의 깊은 정원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의 대청까지, 린후이인과 량쓰청은 중국 영조학사(中國營造學社-당시 중국 고대 건축을 연구하는 학술기구) 동료들과 함께 중국 건축사의 명맥을 다듬었고 또한 그녀만이 량쓰청이 갖고 있는 건축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다.

“후이인,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량쓰청은 20년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경을 함께한 아내를 절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신도 알고 있죠? 오늘 설계 위원회에서 인민영웅기념비 설계방안 심사가 있

다는 것을, 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참석 안 해도 될 이유가 있잖아요.” 린후이인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

“예산 통과된 방안은 이미 다 보았고 당신의 생각을 모두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서면으로 당신 의견을 첨부해 위원회에 올려 남은 심사에 더 많은 신중을 가하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하고 린후이인이 말했다.

“후이인,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젯밤에 깊이 고민을 해 봤는데 그 방안들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전문가들에게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난 반드시 현장에 가야 해요.” 량쓰청은 아내의 말류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켰다.

“정 그렇다면 다녀오세요.” 린후이인은 남편의 성격과 또 그가 기념비 사업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량쓰청이 아픈 몸을 이끌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의 진행 중이던 동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 했다.

“량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위원회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앞다퉈 다가오며 “아이고, 사실 이렇게 직접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방안 서류를 직접 가져다 보여드리고 심사 하시라고 할 텐데.”라고 말했다.

“모두 너무 바쁜 분들이라 회의 한 번 열기도 어려운데 당연히 참석해야지요.” 량쓰청은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고 “제가 늦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께서는 본론으로 돌아가 토론을 계속해 주시지요.”하고 말했다.

의견을 제시하다

위원회 요구사항을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한 십여 가지 방안이 마지막 심사에 올라왔다. 전문가들의 꼼꼼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청화대학 건축과가 제시한 것을 포함한 몇 개의 방안이 기본으로 정해졌다.

회의 의장은 “예산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높이 6-7미터 길이 40미터의 대형 네모난 받침대를 구축하여 중화민족의 건실한 국민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모난 받침대 정면에는 세 개의 문구멍을 열어 창안(長安)거리와 반대쪽에 위치한

텐안문(天安門) 성루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호응하게 하였고, 기념비는 그 넓은 받침대 위에 올려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수많은 건축가와 설계 부서간의 공통 생각을 대표한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곧 이어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었다.

회의실에 있는 전문가 중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잠겨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의견을 교환했다. 량쓰청은 아무도 발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기념비를 세울 위치 선정은 매우 적당하고 설계하신 분의 생각을 충분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여러 전문가 분들과 그 점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량쓰청은 주머니에서 노트와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관점을 서술했다. “우선, 제가 보기에 이 대형 받침대 면적이 지나치게 커, 이것을 광장 가운데 둔다면 전체 비율이 조화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기념비의 주체인 비신(碑身)은 전체 건축물 대비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받침대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량쓰청의 생각에 동의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받침대에 만들 3개의 문구멍 같은 경우 설계사의 의도가 텐안문 성루와 일치를 이루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만, 새로 지을 건축물에는 새로운 형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창안거리 맞은편에 있는 텐안문 성루와 외관상 비슷한 점이 많다면 사람들에게 모방했다는 느낌만 줄 것이고 현대적 건축사상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량쓰청은 간단한 도면을 그려 기념비와 그 주변 건축물에 대한 비교 설명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전문가들의 견해는 기본적 일치를 이루었다.

설계 방안을 제출하다

“그렇다면 량 교수님이 갖고 계신 기념비 설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학자분이 모두가 량쓰청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며칠 동안 저도 고민 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긴 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있

습니다.” 량쓰청이 다시 한 번 자신의 노트를 펼치고는 “하지만 저는 흔쾌히 이를 제안해 여러 전문가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신축하는 인민영웅기념비의 건축양식은 텐안먼 성루와 차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신(新) 구(舊) 사회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설계와 건축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저는 비신(碑身)은 크고 높은 받침대가 아닌 작고 낮은 곳에 자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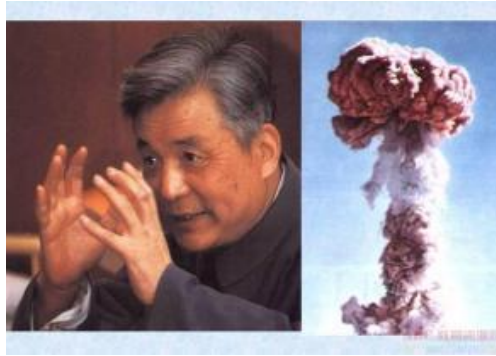
“그렇게 작고 낮은 받침대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또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하고 한 전문가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작고 낮은 받침대가 편안함과 대범함 그리고 광장 전체와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이 천천히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며 존경과 숙연한 마음으로 선열을 기리게 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량쓰청은 자신의 노트를 덮으며 말을 이어갔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제시하고 여러 전문가와 상의하는 한편 비평과 가르침을 구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량쓰청이 제시한 설계 관련 의견은 최종적으로 각계에 받아들여졌고 기념비의 설계방안에도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텐안먼 광장에 설치된 장엄한 인민영웅기념비 앞에 서서 인민 해방 사업에 공헌하신 혁명 선열들을 기릴 때면, 당연히 이 위대한 금자탑에 스며있는 량쓰청의 뜨거운 열정도 떠오르게 된다.

덩자셴(鄧稼先)



한 송이 활짝 피어난 마린꽃(馬蘭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중국도 과학기술강국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시 했던 항목이 바로 독자적 핵무기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꿈의 이정표에 이 분야에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양탄원훈(兩彈元勳 -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의 일등공신)’이라 불리는 덩자셴(鄧稼先)이다.

조국으로 돌아온 해외 유학파 박사

1924년, 안후이(安徽) 화이닝(懷寧)의 한 학자가문에서 태어난 덩자셴은 어릴 적부터 타고난 총명함으로 학업에 열의를 보였다. 소년시절 덩자셴은 무너진 위안밍 위안(圓明園-청나라 최대의 황실정원) 한가운데 서서 ‘어른이 되면 크고 강한 중국만의 총알을 만들어 낼 거야, 그때 누가 감히 우릴 업신여길 수 있는지 두고 보겠어’하고 맹세했다.

1941년 시난(西南)연합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베이징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덩자셴은 조국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미국대학원 진학 시험에 통과해 1948년 순조롭게 미국 퍼듀대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의 뛰어난

성적은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학점을 모두 채웠고, 박사논문 심사도 통과하며 26세 나이에 덩자셴은 물리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덩자셴의 특출한 성적이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더 좋은 연구조건과 생활환경을 제시하며 미국에 남아있게 하려 했지만 덩자셴은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1950년 10월, 그는 조국건설의 뜻을 품은 재능 있는 청년들과 더불어 우월한 근무조건과 생활환경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바로 이때 신중국은 자력으로 원자 폭탄을 발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58년 6월, 마오쩌둥(毛澤東)은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자리에서 “원자폭탄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 봅시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십 년의 노력이면 가능하다고 보입시다만.”하고 말했다.

어린 시절 더 크고 더 강한 총알을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이 쉴 새 없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국가부서 지도자들이 덩자셴을 찾아와 원자폭탄 설계 작업에 참여 의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원자폭탄 설계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과 잠시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중국 최초의 원자폭탄을 제조하다

덩자셴은 원자폭탄 설계 작업을 맡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웠지만 신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부강이 연계된 작업이다 보니 그 막중한 임무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1958년 10월 16일 네룽전(聶榮臻)을 주임으로 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베이징에 집결해 긴박하지만 절도 있게 비밀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로부터 덩자셴은 그의 모든 심혈을 임무에 기울였다.

한편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1959년 6월 20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원자폭탄수학모형과 이와 관련된 기술 자료 제공을 모두 철회했다. 8월 23일 소련은 일방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국방신기술협정을 폐지하며 전문가를 모두 철수시켰고 심지어 종잇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소련은 ‘외부 도움 없이는 중국은

20년이 지나도 원자폭탄하나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 쓸모없는 고철 더미나 잘 지켜라.’하고 비아냥거렸다.

중국 최초 원자폭탄 개발의 막중한 임무는 오롯이 중국 과학자 스스로 일궈내야 했지만, 고난은 패기 넘치는 과학 청년들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소련과의 협력을 파기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중국은 최초 원자폭탄 제조 프로젝트 명칭을 ‘596’으로 정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덩자셴과 과학자들은 일반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헤쳐 가며, 마침내 1964년 10월 중국 최초 원자폭탄 폭발 실험을 성공시켰다.

살아 있는 한 전투는 멈추지 않는다.

덩자셴은 다시 중국 최초 수소폭탄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자폭탄 폭발 실험 후 2년 8개월 만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고 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였다. 중국은 부족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양탄’ 연구개발을 성공시키며 세상을 뒤흔들었다. 특히 더 많은 애국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국가 과학기술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로써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꿈은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됐다.

1986년, 덩자셴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 훈장이 된 전국 노동 모범 훈장을 그의 병실에서 수여받았다. 중국 핵무기사업에 위대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한 표창이었다. 덩자셴은 장엄하게 훈장을 가슴에 달고 “핵무기사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입니다. 저는 단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당이 제게 이렇게 영광을 안겨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첨단사업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제가 병들었지만 필사적으로 병과 싸워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 사업에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 국가와 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기쁘게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2일 후인 1986년 7월 29일, 덩자셴은 전신 출혈로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 덩자셴은 아내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중국을 선택하고 핵 사업을 선택할 것이오.”라고 말했다.

덩자셴을 주인공으로 하고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연구개발이 핵심내용인 칭화 대학 창작 연극 <<마린 꽃이 피다>>에 덩자셴의 일생을 표현한 대사가 있다.

‘만약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기꺼이 중국 고비사막에 핀 한 송이 작은 마린 꽃이 될 것이다. 내 모든 생명을 응집시켜 한순간 빛으로 만들어, 그 빛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을 비추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민족을 감싸며, 민족이 피와 불로 일으킨 국가를 밝혀주어 영원불멸의 강국의 꿈을 멈추지 않게 하리라!’

덩자셴은 마치 활짝 핀 마린 꽃과 같았다. 그 향기로 조국의 과학 기술과 강력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을 매료시켰다.

첸쉐선(錢學森)

<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항공우주의 꿈

“당신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중국의 옥토끼호가 밝은 달 위에서 설 새 없이 지구로 자료를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달 탐사 사업은 중국의 우주공학이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 항공우주의 꿈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항공우주의 대부’라 불리는 첸쉐선(錢學森)이다. 하지만 그토록 유명한 과학자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었다.

걸출한 인재의 귀국길

1911년 상하이(上海)에서 태어난 첸쉐선은 1929년 우수한 성적으로 상하이 교통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다시 칭화(淸華)대학에 합격했고 또 재학 기간 동안 국비지원 미국유학 시험에 합격했다. 첸쉐선은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을 다니며 학업과 일을 병행했다. 공기 역학과 초음속 비행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나타내어 36세 때 이미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됐다.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의 성적이 뛰어나 미국공군으로

부터 대령계급을 수여 받았다. 이를 보면 첸쉐선이 미국 사업에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그네의 마음에는 조국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았고, 당시 열혈 청년들의 조국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꿈은 그들의 생활에 자극이 됐다.

1946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이 소식을 들은 첸쉐선은 흥분한 나머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부인과 다른 무리의 유학생들과 함께 조국으로의 조기 귀국을 계획하며 신중국 발전에 자신들의 역량을 기여하자고 했다. 1950년 여름, 첸쉐선은 가족의 귀국 비행기 표를 일찌감치 예약해 두었다. 첸쉐선이 포장한 졸업연구 서적과 노트의 무게가 무려 800키로나 되어 짐과 소포는 선박을 통해 중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첸쉐선이 기쁨에 찬 마음으로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미국 세관에서는 불법으로 첸쉐선의 짐과 서적을 압수하였고 이민국은 그에게 미국 본토를 떠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모든 것은 펜타곤에서 내린 지시였다. 미국 국방부가 선진 지식에 정통한 과학자의 중국으로의 귀환을 용납할리 없다. 심지어 어느 한 미국 군관은 “첸쉐선 그는 어디에 있든 5개 사단과 맞먹는다. 내가 그를 총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첸쉐선은 이미 미사일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 당시 미국과 소련 양국 구도의 영향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 미국이 이 군사과학 전문가를 놓아 줄 리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첸쉐선이 있을 장소로 가장 적당한 곳은 감옥이라며 노골적으로 체포해 터미널 섬(미국군사기지) 교도소에 송치했다. 첸쉐선의 끊임없는 항의와 미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미국 이민국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석방하였으나 여전히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마침내 떠나다

첸쉐선의 귀국길이 잠시 막혀버렸다.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꿈과 조국의 항공 과학 기술 발전을 이루겠다는 희망은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조국에 기여하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했다. 첸쉐선 입장

에서는 선진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 간절해졌다. 심지어는 3개의 가벼운 상자를 집안에 항상 준비해 두고 언제든지 간편하게 귀국할 준비를 했다.

1955년 6월 첸쉐선은 잠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벨기에에 있는 친척에게 안부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속에 천수통(陳叔通)당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하는 편지를 끼워 보냈다. 편지내용은 ‘조국으로의 귀국을 강력히 바라고 있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편지는 곧바로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의 손에 전해졌고, 1955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중미 양국 대사급회담에서 양국 교민과 관련된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중국정부의 힘겨운 외교 교섭을 통해 미국 이민국은 결국 첸쉐선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중국 항공우주 꿈의 길을 열다

항공우주의 꿈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1955년 초 가을,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클리브랜드 대통령 호’ 증기선으로 귀국 길에 발을 내딛는 첸쉐선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귀국 후 첸쉐선은 곧장 조국의 탄도미사일 사업 발전을 추진시켰다.

1956년 국무원, 중앙군사위는 첸쉐선이 제출한 <<중국 국방 항공산업 창설 의견서>>를 바탕으로 미사일, 항공과학연구의 지도기관인 항공산업위원회를 설립했고 첸쉐선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다음으로 첸쉐선은 중국 최초 로켓과 미사일 연구소 국방부 제 5 연구원을 조직하여 초대 원장을 맡았다. 그는 ‘제트기와 로켓 기술 구축’을 계획하여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과 중국 최초 인공 지구 위성 연구개발에 참여했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원자폭탄을 탑재하는 ‘양탄결합’ 실험도 직접 이끌었다. 중국 근거리 미사일에 원자폭탄을 탑재하는 ‘양탄결합’ 실험과 중국 최초의 항공우주 발전규획 제정에 참여하여 인공두뇌와 시스템 등의 설립을 발전시켰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 최초 원자폭탄 폭발 실험, 1967년 6월 17일 중국 최초 수소폭탄 폭발 실험, 1970년 4월 24일 중국 최초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과 관련된

유공훈장에는 모두 첸쉐선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와 같은 업적으로 첸쉐선은 ‘중국 항공우주의 대부’를 비롯하여 ‘중국 미사일의 대부’와 ‘중국 자동제어의 대부’ 그리고 ‘중국 로켓의 대부’라는 명성을 얻었다.

첸쉐선은 중국이 항공우주로 향하는 꿈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고, 항공우주의 꿈은 그의 귀국의 바람도 확고히 해주었다. 이러한 정신은 대대로 중화건아의 용감한 전진을 이끌어 주었고 중국 항공우주 기술의 커다란 발전을 추진시켜주고 있다.

중국 항공우주 기술은 ‘선저우(神舟)’ 우주선으로부터 ‘창어(嫦娥)’ 달 탐사위성, ‘옥토끼(玉兔) 월면차’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몇 세대 걸친 항공우주 관계자들이 중국 항공우주 강국의 꿈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국민들은 그 꿈을 펼치게 해준 첸쉐선을 영원히 잊지 못 할 것이다.

천징룬(陳景潤)



수학 왕관의 빛나는 보석을 차지하다

왕관 속에 빛나는 보석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한 번쯤 갖게 되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본 책은 바로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스토리이다. 많은 과학기술 인재 중 모든 중국인에게 익숙한 수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천징룬(陳景潤)이다. 왜냐하면 그가 '1+2'로 요약되는 명제를 증명하는 수학의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1+1' 계산이 간단합니까? 유치원 어린이들은 아마도 쉽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저 단순한 숫자의 연산일 뿐이다. 하지만 수학영역에서 '1+1'로 요약되는 명제는 지금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수학의 난제로 수많은 수학자들이 평생 정복하고 싶어 하는 꿈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골드바흐의 추측이다.

1742년 독일 수학자 골드바흐와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가 교류하며 수학명제를 제기했다. 이를 현대 수학용어로 표현하면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이다. 이 명제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학 명제 또한 골드바흐의 추측이라고 한다. 수학자들은 머리를 짜내며 이 명제의

정확성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다 중국의 수학자 천징룬이 이 명제에 가장 근접한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 혹은 한 개의 소수와 한 개 반의 소수의 합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를 증명하였다. 이를 ‘1+2’ 명제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천징룬을 ‘수학 왕관의 빛나는 보석에 마음을 뺏긴 사람’이라고도 부르게 됐다.

천징룬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학을 좋아했다. 그 당시 수학 선생님이 해준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선생님은 “자연과학 분야의 여왕은 수학과고, 수학의 왕관은 수학이론이다. ‘골드바흐 추측’이 바로 왕관 속에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말했다 .

이 말은 천징룬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고 수학이란 매력에 빠져 평생 연구에 몰두했다. 샤먼(廈門)대학 수학과를 전공하였고 졸업 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샤먼 대학에 다시 복귀한 후부터 수학 연구에 몰입했다. 샤먼 대학에서 보여준 두드러진 활약상이 당시 중국의 유명한 수학학자 화뤄경(華羅庚)의 관심을 끌었다. 화뤄경은 당시 겨우 나이 24세 밖에 안 된 천징룬을 중국 과학원 수학연구소(이하 ‘중과원수학소’)에 배정했다. 당시 중과원수학소에 ‘골드바흐의 추측’ 전문 토론 팀을 구성했다. 이 소식은 젊은 천징룬을 매우 들뜨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꿈이 하나씩 눈앞에 떠올랐고 그 한 때의 꿈을 ‘느낄’ 기회가 왔다는 것에 천징룬은 매우 기뻐했다. 천징룬은 토론 팀에 가입했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꿈을 향해 나가다

수학소는 당시 환경이 열악해 몇 명이 방을 같이 사용했다. 꿈에 그리던 실험에 전념하기 위해 천징룬은 이불을 정리하면 바로 작업대로 사용가능한 목판 침대만 있는 면적 6평방미터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천징룬에게는 펜 한 자루만 있다면 고성능 전자계산기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복잡한 과학연산을 천징룬은 모두 펜을 사용해 손으로 계산을 완성했다. 수학에 대한 열정, 꿈에 대한 추구, 모든 어렵고 곤란한 것을 천징룬은 꿈을 실현하게 할 격려라고 여겼다.

1966년 6월 천징룬이 중국 과학원 간행물 <<과학통보>>에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그것이 바로 골드바흐 추측의 연구 성과에서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 합 혹은 한 개의 소수와 한 개 반의 소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명제를 증명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 최고의 연구 성과로 불리며 '1+2'라고 약칭한다. 천징룬의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과학 통보>>는 지면 제한 때문에 전문을 다 게재하지 못했다.

한바탕 내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천징룬의 논문 수정 과정에 차질이 생겼다. 1968년 9월 말, 그의 집이 압수되면서 골드바흐의 추측 '1+2'의 연구 원고가 파손되었고 그는 '외양간(牛棚)'으로 내몰아졌다. 이때가 바로 지식인들의 수난시기였다. 천징룬은 오직 책만 있고 그가 좋아하는 수학만 있다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참아냈다.

'외양간'에서 나온 천징룬은 원래 그가 살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집에 전기가 끊겨 호롱불로 4년을 지내며 골드바흐의 추측을 푸는 길을 다시 걸어갔다. 천징룬은 허름한 작은 집에서 이전에 마친 증명과정을 더 간결하게 하고 논문 용량도 반으로 줄였다. <<큰 짝수를 하나의 소수 및 두 개의 소수 곱셈의 합으로 표시하다>> 라는 완성된 논문을 1973년 <<중국 과학>> 잡지에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골드바흐의 추측 '1+2'이다.

1965년 부허스가로 (Byxwrao)등이 '1+3'을 증명할 때 사용한 것은 대형 고속 전자계산기이지만, 천징룬의 '1+2'는 모두 손으로 계산한 것이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세 자루의 계산종이까지 모두 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천징룬의 연구 성과는 신속하게 국제적 관심을 불러 모았고 동시에 '첸의 정리 (Chen's theorem)'라고 이름 붙였다. 천징룬은 그로부터 수학 왕관의 빛나는 보석을 차지한 중국인이 되었고 아직까지 이를 초월한 사람이 없다.

천징룬은 평생 수학으로 성공하길 바랐고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기여했다. 이 수학의 귀재는 한 세대의 중국 과학기술인재가 과학의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역정을 대변하며, 중국인의 성장을 격려하고 조국의 과학기술발전과 번영에 자신의 청춘을 기여 했다. 새 시대의 청소년은 선배들이 밝혀둔 빛으로 길을 가고 있다. 중화 굴기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 어찌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국에는 수많은 천징룬이 있을 것이고 과학기술 강국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